

군민 의견 모아 군정발전 이끈다

순창군, 30일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등 3개 분야 아이디어 공모

순창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제안공모에 이어 하반기 순창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분야는 ▲인구 4만명 달성 방안,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휴양 힐링, 웰스케이(바이오헬스산업) 분야 발전 방안 등 총 3개 분야다.

특히 이번 모집분야중 하나인 '인구 4만명 달성'은 민선 7기 3대 비전 중 하나로 향후 미래 성장동력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해서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응모에 국민들의 적

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군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에 응모를 받는다.

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싶은 사람은 순창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응모할 수 있고, 포스터의 QR코드를 이용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군은 실무부서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창의성, 능률성, 계

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순창군 기획예산실(063-650-1101, 11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33일간 실시한 상반기 제안공모에는 총 354건이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총 17건을 채택해 3건을 우수 제안으로 시상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농특산물, 추석명절 직거래 장터 인기

도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 치즈·배 등 50여종 선보여...심 민 군수 판매호브

"임실표 농산물을 명절선물로 사고 싶었는데, 여기에 오니 없는 게 없이 많이 있어서 밀로 구매할지 고민되네요. 치즈도 좋고, 오미자즙도 있고, 맛 좋은 배도 있고, 치즈 부꾸미 같은 먹거리까지 임실농산물이 이렇게나 많은 지 몰랐어요."

명절 선물을 밀로 할까 고민하다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찾은 전주시에 사는 김명숙(42·송천동)씨는 즐거이 들어선 임실표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보면 마냥 흐뭇해 하면서 선택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털어냈다.

지난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라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제9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를 열었다.

치즈는 물론 다양한 농특산물을 자랑하는 임실군도 적극 참여했다. 명절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임실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는 임실군 정보화마을 및 마을기업 등 15개소가 참여했다.

치즈와 고추, 배 등 임실군 대표적 농·특산물 외 다슬기, 유과, 조청, 장류, 엑기스류 및 소금 등 50여 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추석 맞춤형 상품을 선보여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제9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심 민 군수가 직접 직거래 장터를 방문하여 임실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판매하고,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얻었다.

이날 행사 첫 날에는 심 민 군수가 직접 직거래 장터를 방문하여 임실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고, 참여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단체장이 직접 찾은 장터에는 판매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임실군은 그동안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청정지역 임실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판매 소득을 높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추석맞이 직거래행사 참여를 통해 청정임실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거래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로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는 2일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열었다.

9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

시민·공무원 유공자 16명 시상

남원시는 2일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매일 갖는 남원사랑 화합의 날이지만 9월 청원조회에서는 사뭇 진지하고 결의에 찬 어조로 전 직원들에게 "운동화 끈을 다시 매는 마음으로 2020년을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자"고 당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공무원 250명이 참석했으며, "치매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는 남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원시 보건소 최민자 담당이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유공자 16명에 대해 시상하고, 이 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분야별 수상 내용에 대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날 이환주 시장이 직원들

에게 당부한 사항으로는 ▲하계휴가 후유증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으로 인해 자칫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에 편승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잇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 ▲추석맞이 종합대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와 상하수도 대책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리, 비상진료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할 것,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준비된 여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계획대로 성실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울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광한루 600년 행사',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주요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순창 팔덕 월곡 선형개선공사 준공

순창군이 그동안 도로 선형 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어오던 군도 11호선 팔덕 월곡 위함도로 구간 116m를 선형 개량해 최근 개통했다.

기존 도로는 급커브와 겨울철 상습 결빙 등 도로 선형 불량으로 차량 통행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군은 연장 116m, 폭 14.5~33.5m의 도로 선형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8년부터 착공해, 지난 8월 말 준공했다.

팔덕면 주민들은 "이번 도로를 선형 개선하여 개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해소는 물론, 도로기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여론에 귀를 기울여 위험도로 시급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선형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위촉

남원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따른 대표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제8기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 기관장과 각 분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시민단체 등 공공과 민간, 이용자 부문에서 대표성을 확보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활동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사회보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급여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와 자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의 복지 중심점이 되어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하고 보완하는 등 복지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는 120만원봉사대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공무원과 민간봉사자의 협력으로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기타 소규모 수선 등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결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미용, 농기계 수리, 복지상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주민 이용과 높은 만족도로 시민 중심의 최고의 행

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 상반기(30회) ▲전기 516건 ▲가스 164건 ▲수도 282건 ▲미용 535건 ▲농기계 442건 등 2,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주민수요에 맞춰 하반기 30회 추진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50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순기 시민소통실장은 "120만원봉사대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운영으로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